

땅끝까지

제106호

2018 7+8

소금 등잔

선교 활동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김준철 신부

말씀 그루터기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 19,40)

김성현 신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선교 활동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오늘날 세상 곳곳에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무엇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시편 8,5-6).

인간은 이토록 귀한 존재기에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닫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루카 5,13).

우리도 선교 활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록 지금 어떤 처지에 있건,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따돌리고 멸시받던 이들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으셨기에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가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랑을 실천하다 목숨마저 바쳤습니다. 오늘날 선배 선교사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가서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고 더 많은 이들이 선교 활동에 투신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의 삶 역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며 나 자신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❶

제106호

땅끝까지



표지

인도 팔라이 교구, 성 토마스 마운트 본당

2018

7+8월 호

『땅끝까지』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전교연맹 회원들을
위하여 펴냅니다.

발행일

2018년 7월 1일

발행인

김준철 신부

편집인

장형심 수녀

편집

문혜영, 박소라, 임미숙

발행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소

(04918)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화

(02)2268-7103, 460-7608~11

팩스

(02)2268-7104

전자 우편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디자인

blackfinger

목 차

<u>소금 등잔</u>	2
선교 활동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 김준철 신부	
<u>말씀 그루터기</u>	4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 19,40) — 김성현 신부	
<u>미사 봉헌 신부</u>	7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 최광규 신부	
<u>한국에서 일한다</u>	10
필립바 블라제나 크라이나코바 수녀	
<u>선교 이야기</u>	18
오리아니 마을의 간호사 — 안옥화 수녀	
<u>지원 후기</u>	
“평안하냐?”(마태 28,9) — 최우주 신부	22
진정한 유기농을 향해 — 이상원 신부	26
<u>세계 교회 소식</u>	30
<u>해외에서 온 편지</u>	32
<u>알림터</u>	33
<u>회원들의 뜨락</u>	
<u>목상 글</u>	34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u>사랑방</u>	35
미사의 은혜 — 이경애	
<u>선교 길잡이</u>	36
선교의 개념	
<u>설터</u>	38
이것이 궁금해요	
<u>후원 소식</u>	39
<u>후원 안내와 기도</u>	42
<u>미사 예물</u>	44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루카 19,40)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
대전교구, 몽골 선교



게르 본당

지난 부활절에는 제가 있는 곳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본당에서 성삼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끈솔라따선교수도회 선교사들이 10여 년 전에 시작한 본당으로, 큼직한 게르를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르가 크다 보니 커다란 돌덩어리를 매달아 무게 중심을 맞추었는데, 그 돌에 십자가를 움푹하게 새겨 성수를 채운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활 성야 미사를 하는 동안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지만, 돌덩이 덕에 게르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돌 위에 고여 있는 세례수를 몽골 전통 은잔에 담아 세례자들의 이마에 부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의 탄생을 보면서 ‘거센 바람처럼 세파에 흔들리더라도 돌덩이처럼 든든한 신앙의 저울추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몽골 신자들에게 고해 성사를 주면서 저는 새삼 사제직을 통한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언젠가 이렇게 사도직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바람이 가슴 한쪽에서 꿈틀댔습니다. 사제는 역시 성무를 수행하면서 정체성을 꽃피우고, 스스로 성화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끈솔라따선교수도회 신부님들



게르 본당에서 진행한 세례식



게르의 무게 중심을 위해 매달아 놓은 돌덩이와 물통

새로운 신자들의
탄생을 보면서
‘거센 바람처럼
세파에 흔들리더라도
돌덩이처럼 든든한
신앙의 저울추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의 선교 방식으로는 그러한 결실을 쉬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그럴 각오로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속에 새기고, 한국어 학원에 새기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그마하게라도 유목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루카 19,40).

제가 잠자코 있어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초원이, 하늘을 나는 새들과 온갖 동물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애기할 것입니다. 말없이 존재만으로도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대열에 들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오밀조밀 꾸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게르를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며칠 지나면 어질러지기 일쑤입니다. 게르가 어질러지면 마음도



부활 성야 미사



함께 어질러집니다. 사실 제가 깔끔한 성격이 아니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제 안에 소리 지르는 돌맹이가 있는가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소리를 따르면 속이 후련해지곤 하니, 역시 계속 따라가야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서 면담을 하고 성사도 보는 프랑스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이 하루는 지금 프랑스 본국에 사제들이 얼마나 부족한데 당신은 몽골에 와 있으니, 하루라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날 신부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건드렸고, 저 역시도 '지금 세상에 사제가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 들어온 만큼 허송세월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몽골은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때입니다. 한 해 가운데 유목민에게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그 탄생을 돕는 유목민의 분주한 손길! 그 손길은 바쁘데도 참으로 평화롭게 보입니다. 선교사의 하루살이도 분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 안에서는 커다란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최광규 시몬 신부

말라위 선교, 마리아수도회



샤미나드 본당

말라위는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카롱가는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큰 말라위 호수를 끼고 있어 아주 멋진 호수의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의 일상은 여느 아프리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조금 더 부족한 편이지요. 저는 카롱가 공동체 부원장과 샤미나드 중등학교 그리고 미라클 기술 전문 대학의 교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케냐, 잠비아, 말라위 그리고 한국에서 온 6명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카롱가는 보건 통계상 30% 이상의 주민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모를 일찍 여윈 아이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사 29,19).



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지만 40%가 절대 빈곤 가정이기에 가난 때문에 그들은 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미라클 기술 전문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전기, 목공, 요리, 회계, IT, 경영 과정이 있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기술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어둠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처음 학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 IT, 회계, 경영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 요리, 목공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과서조차 구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과목마다 2권씩 교과서를 구입해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시험 때만 되면 책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책을 스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도 책을 볼 수 있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신축하는 도서관과 실습실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은 책들과 컴퓨터로 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이사 29.19).

이번에 받은 미사 예물은 샤미나드 중등학교의 책걸상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3명의 학생이 한 책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교실과 책걸상은 수리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필리파 블라제나 크라이나코바 수녀

Sr. Filipa Blazena
Krajnakova

성령선교수녀회

설립일: 1889년 12월 8일
한국 진출일: 1987년 3월 9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한국에 왔다는
슬로바키아 출신 수녀가 있다. 삶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있음이
느껴질 정도로 순수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1. 가족사진
2. 유아 시절
3. 초등학교 시절
4. 아일랜드 어학연수

부모님은 동슬로바키아에서 살다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슬로바키아 중부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모님은 살레시오회 신부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국가여서 종교 활동에 제한이 있었어요. 경찰의 감시 때문에 집에서 기도 모임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용기가 필요했어요. 기도 모임은 사복을 입은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님이 와서 함께 했어요.

저는 1971년에 4남 1녀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에서 교리 수업을 들었고 집에서 신부님에게 교리를 배우기도 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자주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님처럼 직접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어릴 때는 공산주의 이념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질문이 생겼어요. 가톨릭은 좋은 종교인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궁금했고 관심과 호기심이 많았어요.



여러 신부님이 저에게 모범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우리 동네에 부임한 신부님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신부님은 정부의 감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활동을 펼쳤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1, 2. 슬로바키아에서 사도직 활동
3, 4. 체코에서의 사도직 활동

처음 수녀가 되고 싶었을 때와 성령선교수녀회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인기가 가장 높았어요. 저는 섬유와 의류 산업과로 입학했고, 옷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신부님이 저에게 모범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우리 동네에 부임한 신부님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신부님은 정부의 감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활동을 펼쳤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본당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성가대에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본당에 있는 게시판에 운동이나 사제관 행사 등 정보를 붙이는 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본당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녀회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 본당 신부님이 제가 의류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당신 옷을 만든 성령선교수녀회를 추천해 주었어요. 이렇게 지금의 수녀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재밌는 것은 저에게 수녀회를 추천해 준 신부님도 교구 신부를 하다가 카푸친작은형제회에 들어가 아이슬란드에서 선교를 했고 지금은 아이슬란드에서 주교님이 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유기 서원기를 여러 나라에서 보낸 이유가 있나요?

교리 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슬로바키아 학교에서 교리 교육을 하던 수녀님이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가서 제가 후임으로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체코에서 2년 동안 교리를 가르쳤고, 다시 슬로바키아 시골에서 6년 동안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외에도 러시아에서는 기도 모임을 열고 미사 준비를 맡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때문에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루마니





1. 첫 서원
2. 종신 서원
3. 어린이집 활동
4. 시골 선교

아에는 수녀님들이 인사이드를 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3달 동안 채우러 갔어요. 옛 슬로바키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3달 동안 시골 사람들과 성사를 준비했어요.

한국에 파견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나요?

2000년에 폴란드에서 종신 서원을 준비하면서 수녀회 생활에 대한 느낌과 희망하는 선교지 3군데를 적어 총장 수녀님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어요. 그때 저는 쿠바와 체코 그리고 러시아를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신다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말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먼저 선교하고 있던 폴란드 수녀님 2명이 휴가로 폴란드에 들어왔을 때 두 수녀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선교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2002년에 한국에 와서 먼저 학원에서 한국어를 간단히 익히고 사도직을 시작했어요. 처음 했던 사도직은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청소와 빨래를 많이 하고 가끔씩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환자가 소외되고 어려우니까 우리 수녀회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그리고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 에이즈 환자 쉼터를 만들었어요. 저는 내부 정리를 하고 환자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친교 시간을 보냈어요. 수녀님들과 한 방을 나누어 잠을 자기도 했고, 작은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도 했어요. 이외에도 우리 수녀회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잠시 봉사 활동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며 대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는 일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사회 복지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부터 한국에 와서 수녀님들과 함께 이 나라에 필요한 부분을 찾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한국 수녀님들은 한국에서 사회 복지를 공부했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익숙한 영어로 공부하면 사회 복지를 보다 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보여 주셨어요. 필리핀 문화와 사회의 사건들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 필리핀에도 제 마음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잠시라도 도움을 주고 싶는데 한국에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그래도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빨리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어떤 활동을 했나요?

1. 사회 복지학과 단체 사진
2. 사회 복지학과 졸업식
- 3, 4. 사회 복지 실습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했으니까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도직을 하게 되었어요. 수원 엠마우스는 아프리카 수녀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봉사 차원으로 참여하다가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와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수녀님이 함께 지냈어요. 그렇게 이주민 사목을 3년 동안 하다가 2년 정도 연천군에서 농사하며 시골 선교를 했어요.

2016년 12월부터는 서울에 와서 우리 수녀회 선교영성센터에서 지내고 있어요. 3명이 함께 일하는데 2명은 한국 수녀님이예요. 저는 청소와 관리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살았을 때 알게 된 동두천 이주민 공동체와 만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두천 이주민 공동체



제3회 회원들과 함께

해외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선교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챙겨야 해요. 하느님의 계획과 신비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리 교육을 하고 싶었고, 필리핀에서 사회 복지를 배우고 왔지만 지금은 다른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노력한다면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❶



오리아니 마을의 간호사

안옥화 로사리아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아이티 선교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는 1972년에 아이티 대주교의 초대로 프랑스 수녀들이 아이티에서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은 17명의 아이티 수녀들과 7명의 외국인 수녀들이 6군데 공동체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아이티에서 가장 높은 픽라셀(pic la selle)산기슭에 있는 오리아니 마을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는 본당과 학교 그리고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전기와 물 공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료소에는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간신히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조차 비가 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땅 속 관을 통해 물통에 모아 사용하는데, 이웃들도 우리 물통에 있는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와 비 모두 소중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밭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농사지은 작물은 모조리 팔아 그 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니 늘 영양이 부족합니다. 진료소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아픈 환자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밭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농사지는 작물은 모조리 팔아 그 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니 늘 영양이 부족합니다. 진료소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아픈 환자들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정에 10~13명의 자녀가 있어 한두 명의 남자아이만 학교에 보내고 나머지는 어릴 때부터 농사짓는 일꾼으로서 집안일을 돕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녀회는 여자아이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문명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진료소로 첫 출근했던 날의 아침이 생각납니다. 출근하자마자 제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들고 온 침대에 누워 있는 실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복음에서 들것에 실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중풍 환자와 겹쳐 보여 예수님께 이 여자를 살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환자를 살려야 저를 믿고 환자들 이 올 테니깐요. 저는 환자를 침실로 옮기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팔다리를 문질러 혈액 순환을 돕게 하고 링거로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 소리 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이 입소문이 났는지 그 다음부터 진료를 받으려고 4시간을 넘게 걸어오는 사람들과 병원이 쉬는 주일에도 분만하러 오는 산모들과 오토바이 사고로 다쳐서 상처를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혼자서 모든 과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실상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 들어와 그들과 같이 가난하게 살아 보니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지독한 가난이 제 몸에 배여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하루는 진료소 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수녀원에 왔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옥수수 죽과 팔 삶은 물뿐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먹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어떻게 견디지!’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곳 아이들은 한 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해.’라는 울림 때문에 눈물이 멈추었고 저는 옥수수 죽과 팔물을 깨끗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티 선교사로 선택하여 불러주신 주님과 우리 수도회 총장 수녀님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칸방에 침대와 옷장이 없어도 그저 종이 상자만 있으면 행복한 이들입니다. 종이 상자를 풀어서 바닥에 깔면 침대가 되고, 상자를 그대로 두면 옷장이 됩니다. 이 가난과 함께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들의 친구가 되어 더욱 기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❷

아이티 오리아니 마을에서 자원 봉사자를 초대합니다.

연락처: rosaspc@hanmail.net

휴대 전화: +509-34-25-87-71



“평안하냐?” (마태 28,9)

최우주 필립보 신부
서울대교구, 페루 선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미칼 모임에는 14개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91명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의 주제 성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제자에게 “평안하냐?”(마태 28,9)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선교지에서의 삶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환영 인사와 함께 모든 참가자가 스스로 뽑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아미칼 모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번 모임 주제에 차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모임 첫날인데도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면서 서로를 알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의 문희종 주교님과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통해 선교사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교회의 근황과 선교지의 다양한 전례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희중 주교 집전 미사

오후에는 선교 경력에 따라 조를 나누어 자신의 체험과 고민을 얘기하고 어떤 선교사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표현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선교 초년생들은 아직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희망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간 그룹은 이제 선교 역량을 어디에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경험이 가장 많은 조는 선교사로서 지 나온 길을 돌아보며, 선교의 열매뿐만 아니라 과오도 함께 성찰했습니다. 서로의 체험을 들으며 선교지에서 겪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고민했던 여러 물음들에 대한 답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미갈 임원진과 문한림 주교



셋째 날 오전에는 선교 현장과 그 삶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현장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춤을 통해 페루의 아마존 부근 푸칼파와 리마 외곽 빈민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루어 낸 변화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 평신도 선교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제도적 방식으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선교사의 삶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나를 다시 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로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2층 버스를 타고 산 크리스토팔 언덕에 올라 리마의 모습을 봤고, 구시가지에 위치한 대성당과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성인 품에 오른 로사 성녀의 생가와 빗자루 수사인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의 생가를 방문했고 동료 선교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아미칼 모임이었지만,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아미칼 모임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다음 해에 칠레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특별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2017년 4월 7일에 제19차 라틴아메리카 한인 가톨릭 선교사회 모임을 위해 11,65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원 후기

진정한
유기농을
향해

이상원 베다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필리핀 선교

2012년 필리핀 바기오 뱅겟의 키봉안 본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자들의 90% 이상이 농부였는데 외국 광산 기업의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36명의 농부가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80세 할아버지가 폭력 행위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키봉안 본당 신부로서 기업과 정부 관리들의 사리사욕으로 추진된 광산 사업 때문에 시름하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부 관료들을 설득하고자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3년이 지나서야 키봉안 지역이 청정 구역으로 선포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소규모 사금 채취로 전향한 농부들의 마음을 설득해야 했고, 그 대안으로 유기 농업이 떠올랐습니다. 마닐라에서 공급되는 80% 이상의 야채가 뱅겟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이 대량 생산을 위해 화학 비료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간 상인들이 소득을 독식하는 구조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바기오 교구의 유기농 교육과 직매장을 시작하면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 농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1. 푸블라이 본당 공동체 농장
2. 유기농 포장 교육
3. 유기농 야채와 딸기 포장
4. 유기농 교육 과정
5. 망카얀 본당 유기농 교육 수료자들



1. 팍달 본당 매점 설치 전
2, 3, 4, 5. 팍달 본당 매점

농부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기오 교구 산하 유기농 교육과 사회사업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농부들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 적절한 방법과 길을 보여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지원을 통해 2016년 11월에 바기오 교구 3개 본당에 유기농 직매장을 개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곳의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운송 수단이 여의치 않아 밤마다 개인 차량에 야채 상자를 싣고 배달하며 매점에 진열하는 고된 시간들도 견딜 만했습니다. 더불어 농부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농산물을 보장하고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곧 비닐하우스 설치를 기획했고, 냉동 트럭을 구매하여 열악한 유통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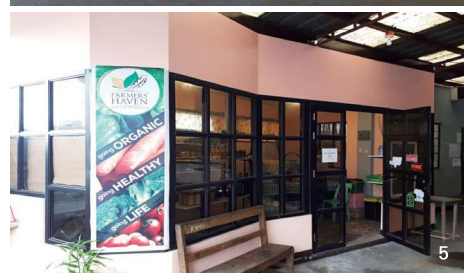
이제 직거래 유기농 매장은 다섯 곳으로 늘어났고 협동조합원도 60명이 되었습니다. 바기오 교구에서 진행하는 유기농 기초 교육 과정은 400명의 졸업생이 생겼고 심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2.5톤 정도의 유기농 채소가 매장에서 거래되고,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참여 농부들의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기마다 고질적으로 생기는 불규칙한 채소 공급을 방지하고자 시작한 비닐하우스 설치

유기농 매장은 다섯 곳으로 늘어났고
 협동조합원도 60명이 되었습니다.
 바기오 교구에서 진행하는 유기농 기초
 교육 과정은 400명의 졸업생이 생겼고
 심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2.5톤 정도의 유기농 채소가 매장에서
 거래되고,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참여
 농부들의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기오 교구의 실질적인 참여로 1천 평
 이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유기농 품
 질 조사나 인증을 포함하여 마닐라 시장의 안착
 을 위해 많은 작업들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경제의 변두리에서 계속 빛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많은 농민들이 그 악순환을 끊고,
 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확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기오 지역 유기농 직거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꿈이자 기본 정
 신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
 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면, 비장한 각오로 영
 원한 생명과 사랑을 완성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에서는 필리핀 바기오 교구
 3개 본당 유기농 매점 건축 사업을 위해 한국외방선교회
 이상원 베다 신부에게 22,34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 2, 3. 산호세 본당 매점
 4. 성빈센트 본당 매점 설치 전
 5. 성빈센트 본당 매점 설치 후

예루살렘 성지의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본당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본당

이스라엘에 있는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본당이 예루살렘 라틴 가톨릭 총 주교좌가 설립한 대목구에 봉헌됐다. 본당과 대목구의 정식 설립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인 5월 20일로 정해졌다.

이 계획을 주도한 예루살렘 라틴 총주교좌의 교구장 서리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대주교는 이번 결정이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20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교회법적 관점에서 볼 때도 기존의 본당들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자발라 대주교는 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 전체에 나눠 보내질 것이라면서, 본당과 대목구가 새로운 사목적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위해 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말을 맺었다. ●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대주교

가장 취약한 계층을 향한

수녀들의 활약

세계적으로 심각한 분쟁 지역에서 일하는 수녀들이 교황청 주재 미국 대사관이 마련한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만남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수녀들의 중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를 강조했다.

남수단 연대의 상임 이사 유디스 페레이라 수녀는 남수단 사람들이 수녀들을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교정 사목, UN 차원의 반인신매매 노력에서 경험을 갖춘 아르헨티나 출신 카르멘 반데오 수녀는 수녀들의 봉사는 모든 측면에서 '삶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강조했다. ❶



유디스 페레이라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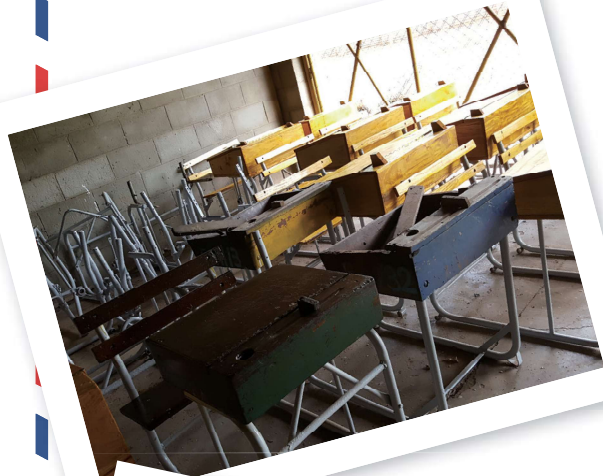


카르멘 반데오 수녀

From.
말라위

지난번에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에
서 받은 미사 예물로 시작한 학교의 책걸
상 수리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책걸
상 45세트가 완전히 새것이 되어 교실에 배
치되었고, 좋아진 교실 환경 덕분에 학생들
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곳 학생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 저도 기쁘니
다.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 최광규 시몬 신부 드림
마리아 수도회



2019년 상반기 해외 선교사 지원 신청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해외 파견 선교사 지원의 일환으로 해마다 두 차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 해외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
- ▶ 지원 내용: 지원을 신청하는 선교사가 직접 동참하는 선교 사업
(특히 선교지 본토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복음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
- ▶ 신청 기간: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 ▶ 신청 방법: 전자 우편(pmsk@pmsk.net)이나 우편 접수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 ▶ 문의 사항: 전자 우편, 전화(02-460-7609)

지원을 받은 후에는 선교지 소식을 작성해야 하고, 기구에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후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지 소식과 지원 후기는 『땅끝까지』에 게재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2018년도에 납부한 기부금부터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와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예정이며, 영수증을 처음 발급받을 회원은 기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을 동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방문



♥ 5월 2일,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대구대교구 김동진 제멜로 신부가 방문했습니다.

회원들의 뜨락

‘회원들의 뜨락’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후원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회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선교에 대해 묵상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태 16,15-16).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느님의 참된 자녀, 제자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자주 ‘어떤 일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풀며 봉사 활동도 하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정말 참다운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았다고 존경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결국 ‘내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추억과 사랑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교황청 전교기구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따라 선교사의 길에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



미사의 은혜

이경애 제르트루다

베드로 사도회 회원, 춘천교구 초당본당

지난해 12월에 피정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뽑은 말씀 쪽지가 기억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시편 126,5-6).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줄 은총을 마련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총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미사의 은혜를 체험한 저는 집안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미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올 4월에 첫째 필립보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고, 둘째 마리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 두 자녀가 시험을 보는 날에 미사 예물 7대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4대째 구교우이고, 남편은 6대째 구교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김천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대학교 후배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결혼할 상대를 만나고자 여름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온 남편은 저와 단 3번의 만남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학업 때문에 바로 미국에 들어갔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챙겨 6달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 1988년 1월 1일에 한인 본당에서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지 본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1994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위해 이공계 박사들을 영입할 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다가 남편이 강릉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강릉에서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일 미사를 빠진 적 없는 저는 초당본당에서도 선교분과와 미사 반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

선교의 개념

우리는 요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션을 수행한다.’라는 말을 쉽게 접하고 있다. 이때 ‘미션’은 사명, 임무를 의미한다. 개신교에서는 ‘미션 스쿨’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때 ‘미션’은 ‘선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전교 주일’, ‘교황청 전교기구’처럼 ‘전교’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와 전교, 미션의 뜻과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선교의 뜻

전교, 선교, 포교는 모두 영어 ‘mission’, 라틴어 ‘missio’를 번역한 것이다. ‘missio(mission)’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담은 라틴어 ‘mittere’에서 유래하였다. ‘missio’는 권한을 가진 이가 대리인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어 어떤 사명을 수행하도록 파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missio’에는 ‘사명’과 ‘파견’의 뜻이 담겨 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교 안에 들어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missio’(mission)를 대부분 ‘선교’라고 번역하며, 때에 따라 ‘전교’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뜻은 같다.

2. 과거 가톨릭 교회의 선교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고, 본토인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선교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많은 선교사가 낯선 선교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선교 활동에 투신하였다. 그렇지만 일부 선교지에서 그들 고유의 종교심, 문화, 관습 등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해 박해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더욱이 수도회나 선교회들의 무모한 선교 경쟁이나 식민지 세력의 횡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으로 선교 활동에 좋지 않은 표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식민지주의의 폐해에 따른 결과로 선교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선교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선교 열기가 식게 되었다.

3. 선교 개념의 발전

(1) 선교 교령

1965년에 폐막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을 통해 선교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라 정의하며¹⁾ 선교 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강조하였다.²⁾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나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양심대로 사는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천명하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선교 열정이 약화하기 시작하였다.

(2) 현대의 복음 선교

이런 배경에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은 1975년에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를 반포해 복음화의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복음화는 단순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복음 선포는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모든 개인과 집단, 그들의 활동, 가치관, 생활 양식, 구체적 생활 환경, 문화 등을 복음의 가치에 맞게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³⁾ 여기서 선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복음화는 교회가 펼쳐야 하는 사명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90년에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을 반포하여 복음화 활동을 만민 선교, 사목 활동, 새로운 복음화로 구분하며, 그 가운데 선교 활동을 강조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❶

1) 선교 교령 6항 참조

2) 선교 교령 2항 참조

3) 『현대의 복음 선교』 18, 19항 참조



이것이 궁금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도
구원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온갖 희생을
무릅쓰며 힘들게
선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도 성실한 마음과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교회 헌장 16항). 따라서 그들 역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저마다 정의와 평화를 외치지만 우리 사회는 전쟁과 분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올바른지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는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전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마태 24,5).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널리 알리며, 모든 이가 참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❶

2018년 세계 선교 기도 지향

7월 사제와 사목 직무

사목 직무를 수행하며 피로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이 주님의 친교와 형제 사제들과의 우정에서 도움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18년 3~4월까지
후원 회비 납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회원 _____ 교황청 전교회 김종신(서울대교구 방배동본당) 박성희(의정부교구 식사동본당) 이응호(인천교구 도화동본당)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권윤주(서울대교구 송파동본당) 김세연(인천교구 한국순교성인본당) 조민정(전주교구 요촌본당)
허은총(원주교구 무실동본당)

2.

회비 내역 _____ 교황청 전교회

연회비

고정자 김정희 문현숙 박경숙 서찬석 신운식 윤경숙 이명옥 이상순 이춘수 장을순 장춘도 정연석
정임숙

월회비

강나경	강두호	강미미	강성숙	강성오	강성춘	강순희	강영민	강원경	강윤숙	강인면	강정은	강준선
강태식	강태종	고안희	고옥자	고은주	고정희	고춘선	고현자	고형주	곽진희	곽태이	곽현선	구옥자
구재엽	구현정	국명철	권병일	권수현	권영근	권오영	권오희	권은선	권혜란	금진숙	김경숙	김경식
김경희	김계림	김계현	김광희	김국주	김군자	김기순	김기해	김남영	김남혁	김대국	김덕순	김동량
김동희	김두찬	김리나	김명리	김명숙	김명화	김문영	김문자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옥
김미이	김미정	김민관	김민흠	김병삼	김봉숙	김부연	김분순	김 상	김상임	김상철	김석원	김석자
김석환	김선경	김선례	김성례	김성민	김성배	김성숙	김성용	김성은	김성진	김성철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 송	김송유	김수민	김수진	김순남	김순우	김순자	김순희	김승유	김시환	김신영	김신자
김아영	김양순	김언연	김언주	김연규	김연식	김영미	김영순	김영실	김영엽	김영자	김영주	김영채
김영하	김영학	김영희	김용태	김용희	김원두	김원희	김유경	김유선	김유숙	김윤규	김윤미	김윤자
김은우	김은희	김인경	김인숙	김인자	김인환	김인희	김일순	김자경	김재우	김정기	김정동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은	김정한	김정호	김종배	김종신	김종애	김종철	김종호	김종희	김주한
김주희	김준곤	김지묵	김지연	김지현	김진고	김진례	김진모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찬숙	김채봉
김 철	김추분	김춘자	김태연	김태현	김태흥	김현동	김현배	김혜숙	김혜순	김혜영	김홍중	김화영
김화자	김황중	김효숙	김효순	김희숙	김희정	나 솔	나윤자	남경우	남궁건	남궁향숙	남기문	남삼현
남선미	남현아	남현우	남혜란	노유진	노진열	노현숙	노현지	노희균	도재홍	두옥순	류기봉	류재웅
류지영	맹선옥	맹홍순	모상선	문병국	문수영	문윤아	문정환	문혜경	문혜영	문 희	민구희	박경란
박경인	박경자	박계숙	박귀례	박귀자	박금선	박기연	박동근	박동혁	박동환	박만자	박미란	박미성
박미수	박미정	박민수	박병선	박병익	박병호	박복실	박상석	박상운	박선희	박성기	박성순	박성희
박소라	박소연	박소영	박수현	박수환	박순덕	박연순	박연실	박연희	박영근	박영란	박옥남	박옥희
박윤재	박재완	박재준	박정수	박정숙	박정순	박정희	박종신	박종훈	박주몽	박주찬	박주현	박준성
박지연	박진명	박진숙	박창목	신부	박충서	박필수	박하순	박현숙	박혜신	박혜자	박홍규	박화선
박희실	박희자	박희현	방경희	방명순	배명순	배문찬	배봉한	배숙희	배혜영	백순임	백순자	백중기
백흥관	백희정	변선화	변일서	보은본당	빈체시오회		상채옥	서경애	서계희	서명희	서문규	서복순
서성민	서수경	서영석	서영숙	서영일	서옥순	서정란	서학순	서행용	석영애	석종례	석지현	설아현

설지현	설화영	성미숙	성준용	손광옥	손명수	손문희	손애란	손인숙	손희준	송경배	송광섭	송란주
송명숙	송석호	송승은	송옥섭	송은숙	송진숙	신귀덕	신귀자	신순복	신승호	신영혜	신정목	신부
신태균	심순희	심일구	심재봉	심혜연	안경자	안경희	안계창	안기상	안덕수	안동필	안미숙	안부용
안수진	안양자	안영자	안영철	안지연	안지현	안현정	안혜영	양경숙	양도균	양문순	양미경	양순정
양승균	양승룡	양유생	양현철	양홍선	염순희	여영옥	여운설	염승희	염우석	염주인	오경옥	오동훈
오미례	오미자	오영원	오영인	오예진	오원영	오윤서	오윤자	오인자	오주호	오희숙	우미선	우봉기
윤난향	원광수	원권식	원영미	유경빈	유대식	유명희	유병조	유보라	유봉윤	유성종	유소형	유숙자
유숙희	유양자	유영옥	유은숙	유인숙	유정열	윤기분	윤기중	윤보나	윤복동	윤복숙	윤상현	윤석진
윤성자	윤순례	윤승용	윤양숙	윤연순	윤영일	윤용범	윤은숙	윤정미	윤주원	윤준혁	윤지순	윤한옥
윤현철	이갑수	이경란	이경미	이경빈	이경식	이경옥	이경자	이계은	이광성	이광재	이귀순	이귀주
이규자	이규천	이금자	이기는	이남순	이만덕	이명승	이명아	이명희	이문희	이미하	이민아	이민주
이병옥	이병은	이복상	이복희	이상복	이상연	이상진	신부	이서연	이 석	이석두	이석우	이선경
이선영	이선일	이성신	이성희	이소영	이수명	이수원	이수종	이수진	이숙자	이순남	이순복	이순영
이순옥	이순자	이승연	이승재	이승현	이시연	이신영	이영숙	이영심	이영애	이영인	이영자	이영훈
이영희	이옥경	이옥자	이용우	이우보	이윤녕	이윤례	이윤서	이은화	이은희	이응호	이의숙	이인수
이인재	이재민	이재연	이재희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옥	이정자	이정주	이정준	이종인	이종하
이종훈	이주영	이준숙	이진영	이차남	이찬우	이채혁	이철훈	이춘득	이하늘	이한영	이한준	이해경
이해숙	이현무	이현순	이현옥	이혜경	이혜령	이혜민	이혜훈	이홍일	이환섭	이효종	이희길	이희아
이희열	임강숙	임경옥	임덕희	임미라	임미숙	임분도	임영기	임영남	임정순	임종학	임주영	장기순
장명숙	장문희	장미자	장보순	장부배	장선엽	장성순	장성천	장순옥	장영현	장윤희	장향숙	전명희
전미순	전민정	전복호	전성운	전숙연	전연숙	전종문	전향순	전희정	정두용	정문국	정석원	정성효
정소진	정숙지	정안순	정영석	정영숙	정영애	정영호	정완호	정우순	정의숙	정인순	정재형	정정숙
정찬옥	정철원	정충영	정현주	정희승	제갈광호	조경윤	조년향	조명하	조미혜	조병권	조병학	조병호
조상현	조성애	조성옥	조송자	조수연	조순덕	조순정	조송인	조아영	조양경	조영행	조요성	조용원
조원자	조유미	조윤희	조은아	조지애	조학순	조 현	조현일	주미선	주미진	주인해	주호순	진경자
진인정	진진옥	차영희	차정운	차혁진	차혜순	채성옥	채수현	채윤제	채희자	천귀심	천선녀	천윤경
최강일	최강희	최경옥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	최구현	최동자	최두성	최명자	최명훈	최문성	최미경
최보미	최복련	최선이	최선진	최선희	최성희	최세현	최영랑	최영순	최영자	최영희	최용환	최유정
최윤복	최윤서	최은나	최은성	최재철	최재혁	최정은	최정호	최중경	최혜원	최희자	추재학	하명순
하영례	하 옥	하정희	한동환	한명석	신부	한상애	한순숙	한용애	한용주	한은애	한 정	한정옥
한종옥	한태열	한혜연	한호섭	한호승	한호연	함설희	허영민	허영애	허정현	허홍근	현계생	현재훈
홍금숙	홍새봄	홍성희	홍순기	홍순명	홍순정	홍순철	홍승표	홍영희	홍정애	홍정자	홍주희	홍지혜
홍행실	황귀남	황동석	황부자	황성옥	황성희	황재삼	황현숙	황혜숙				

기타

김초자 신원선 신중석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연회비

권정자 김순희 김영아 신영자

월회비

강경희	강금석	강금숙	강길자	강명호	강병수	강영민	강영준	강운룡	고옥자	고춘선	곽미경	구미자
구신남	구윤관	권성순	권수정	권숙영	권순현	권용현	권준하	권태영	길혜자	김가은	김간난	김경숙
김경원	김광시	김국주	김근호	김기영	김남순	김남영	김대수	김동규	김명숙	김명옥	김무진	김미선
김미정	김민정	김병구	김병삼	김복남	김봉심	김선경	김선희	김수연	김수정	김순희	김승기	김승현
김신영	김양수	김연규	김영경	김영균	김영숙	김영자	김영희	김옥화	김용선	김용화	김우경	김원용
김유리	김유화	김은경	김은정	김은희	김재경	김재만	김정녀	김종선	김종연	김주철	김지영	김지혜
김지환	김진혁	김춘자	김하진	김한철	김현철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화순	김화자	김흥년 신부
김희정	나경민	나지민	남경우	남궁균	남기수	남현정	노병금	노승신	노연승	도재홍	류지원	류혜설
맹준호	문세훈	문재일	문주미	문종갑	박경순	박귀순	박금연	박기성	박대석	박동혁	박영안	박미정
박미주	박민영	박상배	박수정	박숙경	박숙희	박순덕	박순임	박연희	박영실	박은영	박이경	박익자
박재승	박점옥	박정숙	박종안	박종일	박주현	박준성	박진규	박진영	박찬결	박창목 신부		박용자
박혜숙	박훈갑	방경란	배인석	배정연	백혜경	변기영	문시놀	변상돈	변선화	변혜련	서미정	서용석
서정희	서지우	성묘야	손인숙	손 혁	손희탁	송광섭	송란주	신경희	신영남	신한나	신혜희	심찬희
심혜숙	심호희	안경수	안경자	안광수	안현정	양금환	양승룡	양인자	엄지혜	염고운	염바름	염예은
오동춘	오민정	오원영	오윤수	오재택	오정숙	오혜숙	우미선	원경아	유경호	유명순	유비아	유제성
유종열	유지수	유현숙	유희배	윤미선	윤부일	윤선애	윤승용	윤승환	윤하은	윤한솔	이건표	이경빈
이경옥	이경임	이경자	이관애	이규자	이기자	이명숙	이명아	이명희	이미선	이미영	이보배	이복남
이상수	이상희	이소현	이수덕	이수연	이수용	이순옥	이순진	이승남	이승준	이승환	이연숙	이영남
이영수	이영옥	이영자	이영지	이영희	이옥진	이용신	이용태	이인재	이재열	이정숙	이종구	이종순
이종해	이 진	이진영	이진이	이창효	이철우 신부		이충서	이충수	이필선	이향남	이현정	이혜경
이혜령	이혜숙	임성열	임연순	임영미	임혜란	장기연	장성천	장영옥	장정희	장향숙	전진철	전흥수
정기옥	정미옥	정민희	정소미	정소진	정연순	정영명	정영옥	정원서	정용자	정정규	정정자	정창복
정한승	정환일	정희순	조경현	조근자	조민영	조민정	조민준	조병기	조봉희	조석순	조성애	조영자
조인규	조지현	조평운	주경철	주종옥	지경숙	진양자	진인정	차영숙	채서진	채수현	최명선	최명희
최미환	최선영	최순영	최신영	최영룡	최영순	최은성	최은영	최의자	최인숙	최정은	최정희	최진휴
최형규	최혜숙	추민경	추재철	추현서	표정자	하동환	하순복	하정희	한경은	한선옥	한성림	한승윤
한영수	한유경	한은영	한창전	한호연	함윤길	허성수	허은총	허정애	현명옥	홍기영	홍상희	홍새봄
홍선미	홍순정	홍승재	홍승표	홍지나	홍희숙	황순자						

3. 2018년 3~4월에 사랑의 성금 _____ 보내 주신 사랑의 성금은 총 600,000원입니다.

3월

개인 박모니카 100,000원 이재승 50,000원 이현옥 50,000원 황용하 50,000원

단체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50,000원

4월

개인 이재승 50,000원 이현옥 50,000원 황용하 50,000원

단체 상주가르멜여자수도원 100,000원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50,000원



회비 납부 안내(후원 문의 : 02.2268.7103)

후원은 또 다른 선교입니다.

지로 7524424
국민 045-01-0155-088
신한 100-027-267395
우리 1005-801-858453
하나 388-910003-06104
우체국 012823-02-225971
농협 351-0097-3281-0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회원들을 위한 미사 봉헌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7월에는 회원들이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잘 봉헌할 수 있도록,
8월에는 회원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성체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베드로 사도회 기도문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소화 데레사께 드리는 기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당신은 전 세계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 되시는 영예를 받으셨나이다.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당신의 뜨거운 소망을 되새기며 간구하오니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제와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선교 지역의 성소를 더욱 증진시키시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기



해외 선교 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 02) 460-7609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미사 예물



접수 안내 (02.460.7609)

가난한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이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국민 292501-01-084841
신한 100-027-267349
우리 1005-201-838316
하나 388-910003-64204
우체국 010231-01-002369
농협 351-0097-3257-8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2018년 3~4월 미사 예물 전달

후원 회원님들이 신청한 미사 예물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일자	내역	미사(대)	금액(원)
3월 6일	잠비아 김대식 신부	135	2,015,000
3월 19일	멕시코 강신우 신부	136	2,015,000
3월 30일	말라위 최광규 신부	172	2,029,730
4월 12일	케냐 홍성철 신부	132	2,015,000
4월 13일	멕시코 양금주 신부	136	2,035,000
4월 19일	마다가스카르 최재도 신부	135	2,020,159
합계		846	12,129,889